

투데이 칼럼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원하며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잘 보전하고 교육, 관광 사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지질자원을 적극 활용한 교육도 할 수 있고, 관광을 통해 지역이미지 상승은 물론, 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로 다른 보호지역과 달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4년마다 재인증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지질공원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지구역사에 있어 지질학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가치를 보존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대두됐고, 2000년 유럽지질공원 네트워크가 결성된 후 2004년에 유네스코가 지원하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가 출범하면서 처음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지질공원은 특별한 과학적 중요성, 희귀성 또는 아름다움을 지닌 지질현상으로 지질학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

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는 지역으로 보전, 교육 및 관광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가 2010년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 총회에서 최초의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지질여건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고, 이후 우리나라에 국가지질공원제도도 2011년 도입되면서 지질유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부안군과 함께 전라북도 주관으로 우수한 지질자원을 현명하게 보전하고 활용하

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도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지질공원 조례 제정,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 지질전문가 채용, 지질명소 안내센터 및 안내관 설치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고창군 지질명소는 '운곡습지와 고인돌군', '병비위', '선운산', '소요산', '고창갯벌', '고창 명사십리 및 구시포', 6개소이며 부안군 지질명소는 '채석강', '적벽강', '위도', '직소폭포', '술섬', '모항' 6개소다. 이 지질명소 12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

공원'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현장조사 1차·2차를 마치고 국가지질공원 위원회 최종 심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은 총 8개소로 울릉도·독도, 제주도, 부산, 강원평화, 청송, 무등산권역, 한탄·임진강, 강원고생대이며, 세계지질공원은 33개국 119개 지역으로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청송 2개 지역이며, 무등산권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가기 위해 인증 심사 중에 있다.

국가지질공원은 또 하나의 지역발전의 편을 끼칠 수 있는 성장동력원이다. 고창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관왕에 올라 고창군은 세계적으로도 흔히 볼 수 없는 명실상부한 자연생태환경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정경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생태환경도시 고창군, 미래 100년의 발전을 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6만여 고창군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

함민안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 생태지질팀장



독자제언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해야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대표적 이슈로 떠올랐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표시와 피해사실에 대한 상담 요청 및 문제제기 등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성희롱의 특성상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자의 피해 당시의 대처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성희롱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 '장난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다. 문제가 제기 되면 가해

자는 상대방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지면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즉시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그 조직의 근절의지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주변 동료들은 피해자의 대응행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피서철 물가 조심하자!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해 산으로 바다로 떠는 피서철이 기다왔다.

피서철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건 바로 물가 범죄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는 2011년 35건에서 2016년 67건으로 86.1% 급증했다.

물가 범죄는 수영장, 피서지 내 탈의실·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 생활 장소 곳곳에서 발생하여 여성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물가범죄 집중기간을 추진한다.

여름철 피서지 등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물범이 집중 오후시간대 배지 거점근무 등 성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피서지 내 화장실·탈의실, 다중이용 시설 등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또한 온라인상 물가 촬영물 유통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단속과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불법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도 물가 음란물을 게시한 IP추적 등을 통해 유통자를 검거하고 물가 등 성폭력 범죄 신고시 최대 20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또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 공공시설 이용시 스마트폰 등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물카로 의심되는 부분이나 나사 혹은 구멍이 있는지 위·아래로 확인을 해 보고 물가 여부가 확실시 된다면 재빨리 112로 신고하며 평소에도 호투라기, 경보기 등 호신용품 등을 소지하고 휴대폰에 112단축번호를 저장하거나 112긴급신고 앱을 설치하여 긴급신고 상황에 대비한다.

또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취상태는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양재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힘내야 한다

익산시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다시 관심의 초점을 모아야겠다. 저변에 발표했던 바, 6대기업 지원시설을 중심으로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이다.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전북발전 현안 사업들 중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 비중이 크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익산식품 클러스터에 대해 평가하자면 그 추진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더디다.

꾸준히 능동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발전의지를 뜨겁게 달구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온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익산시는 물론이고 전북지역은 그만큼 발전할 게 틀림 없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힘내야 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익산의 국가 식품클러스터가 제 모습을 드러내면 도내 농가들에게도 괄목할 만한 경제적 실익을 줄 터이다. 또 그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도 있을 터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언제쯤 현실화 될지 알

수가 없다. 익산식품클러스터와 관련해 도민은 이런저런 주문들을 했는데 아직은 그게 기대박이다. 말로는 거창하게 국가식품 클러스터라지만 현장을 보면 아직 준비 부족이 역력하다. 우선 기초한 분양률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분양률이 왜 저조한지 익산시의 관계자들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입주 분양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 기업들이 바라는 맞춤형 인력 수급체계도 절실하다. 이제 공감대 부족한 홍보는 그만두고 실속 있는 마련을 내놓아야 한다.

사업을 벌여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모습은 세계 식품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마리를 맞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야 한다.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성공신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제 달라져야 한다. 새만큼 사업에 관심을 갖는 그 이상으로 두루 힘을 쏟아야겠다는 당부이다.

농생명 산업으로 농가소득 도모해야

전북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의 소득 증대를 말해왔다. 그런데 농촌의 실상을 보면 소득 증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민들 중에 소득이 증대됐다고 말하는 이는 별로 없다. 전북도가 농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을 테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 말하는데 전북도는 농가의 소득 증대 방법을 새롭게 도모해야겠다.

전북도는 농가를 위해서 삼락농정 비전을 여러번 제시했다. 삼락농정은 도정 현안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말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농생명 산업으로 소득을 증대하려는 이같은 주문은 당연하다.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농생명 산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라는 주문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충분하다. 우리 전북이 전통적인 농도라는 것은 여기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우리 전북이 농도가 맞냐며 공감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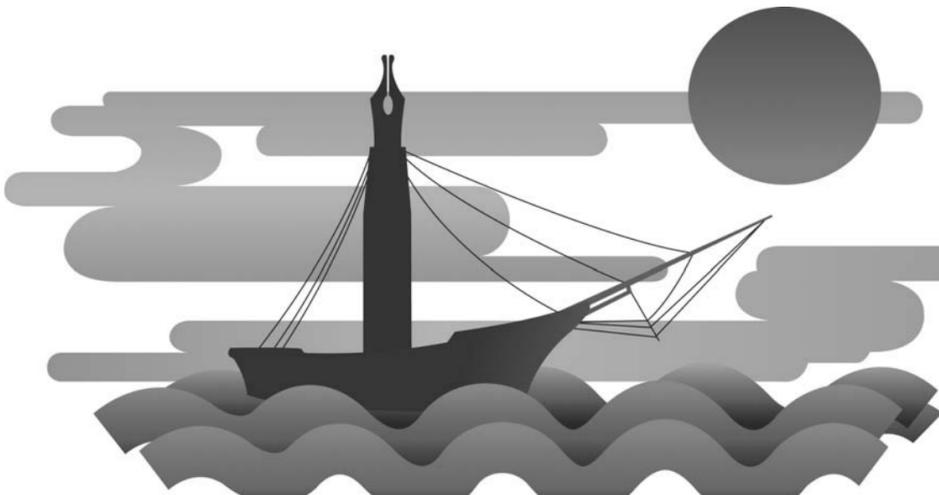
전북도는 그동안 농가를 위하여 이런저런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삼락농정의 목표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의

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삼락농정의 성적표가 어떤지 궁금하다. 농업을 살리고 농촌을 살리려면 삼락농정의 실적이 뚜렷해야 한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의 이상을 실현하려면 농생명 산업의 허브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가 언젠가 농생명 허브화를 말한 것은 농업의 미래 발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임에 틀림이 없을 터이다. 삼락농정이든 농생명 산업의 허브화이든 이제 농촌의 환경이 변해야 한다.

도내에는 한해 수입이 1억 이상인 부농보다 그에 못 미치는 빈농들이 더 많다. 전북도가 농가 소득 증대를 실현하려면 농가들 속으로 먼저 접근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시 말하거나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 확대를 농가 소득을 도모해야 한다. 전북도의 말 그대로 농생명 산업의 허브화를 추진해야 한다. 삼락농정과 농생명 사업의 허브화, 그 두 가지 구상의 발원지는 바로 전북도이다.

전북도는 농업 발전이 도정 최고 우선순위라고 말했으므로 농생명 산업 확대 쪽이든 허브화 쪽이든 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